

## 양계업계 정화를 위한 간담회

# 정직하고 건전한 풍토조성만이 우리가 영원히 안정되는 길

### 참 석 자

유종래 (본 회 회 장, 직장정화운동추진위원장)

박준영 (한협총계장대표, 직장정화운동추진부위원장)

김중경 (오 경 농 장 대 표, 본회부산경남지부장)

신정일 (유일농원영업부장, 직장정화운동추진위원)

사회 : 노영한 (본지편집국장, 직장정화운동추진위원)

일시 : 1980. 9. 16 오후 2시

사회: 지금 국내에는 새 시대, 새 질서운동에 발맞춘 정화 운동이 범 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도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과연 어느 부분이 정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양계인들의 인식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각 업계의 중진 되시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되겠는데요, 이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에는 최근 사회의 부정, 부패, 비리, 폐습을 척결하기 위한 정화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계도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다지만 구석구석에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잔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불신풍조 문제입니다.

부화, 채란, 브로일러, 사료, 동물약품 업계까지 한 양계가족이 되어 화목하고 단합된 업계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생산이 과잉되면 모든 원인이 부화장에 있는 것처럼 돌리면서 자신은 입식을 많이 한다든지, 사육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사양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었나 살펴보기 전에 부화장이나 사료에 문제가 있는 탓으로 무조건 돌리려 한다든지 하는 일이 허다한 것으로 압니다. 모든 것이 우선 내가 할 일을 다했는가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 훨씬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협회를 맡고 난후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모든 생산자가 협회안에 들어와서 공동의 힘을 모아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자 하는 것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협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 종 래〉

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협회가 하는 일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요즈음 같은 계기에 모든 업계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과감히 파헤쳐서 밝고 명랑한 양계산업이 될 수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회:** 이 문제에 관해 저는 품질향상 문제, 생산비절감 문제, 불신품조, 유통·질서의 혼란, 과당경쟁의 방지, 사료, 동물약품업계의 문제점, 기타사항등으로 크게 나누어보았습니다. 그중 품질향상 문제는 이번 호에 기사를 다루기로 했습니다만 품질향상에 저해되는 요소중 가장 어려운 것이 병아리의 품질향상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박준영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준영:** 병아리의 품질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 역시 먼저 양계업을 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인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닭에서의 사고 대부분이 부화장의 탓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책임의 전가 이전에 좀더 냉철한 원인분석과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안적인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화물



〈김 중 경〉

하는 모든 분들의 태도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 병아리를 만들어 신용있는 부화장이 되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에 사업생명을 걸고 있는 만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아리의 사고원인이 어디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택만 하더라도 분명히 백신접종을 하는데도 발병하여 양계농가가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한 원인규명이안되고 있으며요즈음 브로일러에서 4-5주에 원인불명의 폐사가 일어나는 사례 역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읍니다. 아무튼 부화장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하는 문제점은 과연 좋은 시설속에서 종계 관리와 부화가 이루어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같은 종계를 여러 부화장에서 나누어 사육 했을때도 그 품질에 차이가 나는 것을 미루어 볼때도 부화장 스스로가 선진과 같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성심껏 생산해 낸다면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도 몇몇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 보자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 사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부화장은 사료에, 사료



〈박준영〉



〈신정일〉



〈노영한〉

공장은 부화장에 또 사육업자에게 서로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은 매번 있는 일입니다.

결국 피해는 양축가들이 보는 셈인데 이러한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병아리가 남아돌때는 품질이 좋다가도 팔릴때는 나빠진다는 얘기가 브로일러나 채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자주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역시 부화장측의 반성을 촉구하는 얘기가 하겠습니다.

**박준영:** 품질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수준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양계업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통계의 부재입니다. 종계사료판매 수치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종계가 400-500만수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른 금년 병아리 판매액을 대강 추정해 보면 300억 정도의 시장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료 효율을 0.3만 개선하면 150억원이 절약이 된다니 놀라운일이 아닙니까. 닭의 수요가 많아지면 사육자들은 자연히 양계장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뜸 해지고 닭 값이 오르면 사양관리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일하면 언제나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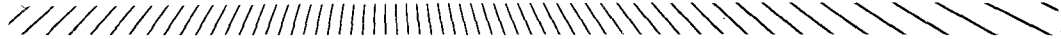
할수 있습니다. 병아리가 부족할 때는 50g 짜리 종란이라도 입란하는 그런 무책임한 일이 있기전에 적절한 수급조절이 이루어져야지만 양계업계는 안정되고 또한 품질의 획기적인 개선도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종래:** 수급조절은 참으로 중요한 얘기죠. 우선적으로 모든 부화장에 입식되는 종계 숫자를 성실하게 보고한다면 농수산부나 협회에서 통계를 집계하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50g 의 종란을 입란하는 경우와 같이 물건이 부족하다고 하여 저하된 품질의 상품을 내는 풍토가 한시바빠 우리 업계에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더 잘 살수 있겠습니까? 물량이 모자란다 해도 규격의 생산품만을 만들어 파는 정당하고 정직한 풍토조성에 모두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사회:** 네, 그러면 신정일 부장께서 브로일러의 품질문제를 생산비 절감방안과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도계 유통이 안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현재의 유통량중 10% 정도는 상품으로서 불합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도계 유통이 되었을때 10% 정도는 단가가 비싸져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육계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만큼 생산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브로일러도 앞으로 MD 접종을 해야하고 병계가 생기면 먼저 닭장사를 불러 처분할 생각보다는 원인을 찾아내야 하고 닭이 죽지만 앓았으면 팔 수 있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신정일:** 육계의 품질문제는 생산자의 관리 여하에 따라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라는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육계 생산자는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사오고 사료 공장장에서 사료를 사와 생산자의 노력과 기술로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데는 세가지 요인이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품질은 떨어지고 말죠. 아까도 말이나왔지만 어떤 요인으로 잘못되었을 때 사실 부화장이나 사료도 이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까지 생산자들의 잘못은 많이 덮여져 왔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닭이 생산되는데 그 사양 관리의 비중은 실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난 7월까지의 경우를 보아 같은 병아리를 여러 곳에서 사육하는데 따라 생산원가가 100원이상까지의 차이를 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생산원가뿐 아니라 육계의 품질에서도 심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럴 때 같은 무게라도 상인은 어떤 곳에서는 20원을 더 주기도 덜 주기도 하고 사깁니다.

따라서 품질문제는 부화장, 사료회사, 생산자가 삼위일체되어 열심히만 하면 해결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사회:** 채란계의 산업에 있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놀라운 발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생산비 문제에 있어서는 대란 1개 35원 드는 곳이 있는가하면 37원 드는 곳도 있고 산란율 평균 70% 이상을 보이는 곳이 있는가하

면 60% 이하 밖에 올리지 못하는 등 농장 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채란양제도 무조건 생산만 하면 알값에 의해 수지를 본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다는 사고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김중경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중경:** 모든 채란업자들이 독식생리에서 탈피해야지만 채란업은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료의 외상거래 문제로 생산과잉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 문제는 결국 양축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양축가는 무모하게 사업을 확산시키게 되고 사료공장도 공장대로 이자등을 생산비에 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오르거나 품질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성실한 노력의 댓가로만 적정이윤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녀야 합니다. 사육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부화와 사료가 있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현장 관리만 잘하면 질병(MD, 콕시듐)피해를 훨씬 줄일수 있습니다. 육성이 좋은 닭에서는 MD가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신정일:** 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생산비 절감 문제는 덜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문제가 되므로 생산 원가의 절감문제는 점차 중요해 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영양식품을 싸게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의 강화가 초점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품질면에서 얘기된 여러 문제점들 즉, 부실한 병아리, 사료의 외상거래등 모두가 결국 원가에 가산이 됩니다. 세금 문제도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적으로도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겠습니다.

**사회:** 네, 브로일러 C.C 계군을 검사해보니 한 계군은 음성 한 계군은 양성이었다는데 똑같이 육성되는 과정에서 사료 효율의 차이로 1000수당 16만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 할 얘기는 무궁무진하게 많으나 월간 양계에 특집으로 게재되고 있으니 그 중요성만을 얘기하는 정도로 끝내기로 하죠.

다음으로 불신폭조, 유통질서의 혼란, 과당경쟁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들면 닭이 좀 남을 때는 모든 상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닭이 심하게 과잉되어 있는 것 같이 만들고 닭값이 오를 기세를 보이면 출하를 하지 않아 닭값을 폭등시키는 등의 너무나 알파한 행동들이 허다한데 이러한 사례들이 점차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박준영:** 현재 우리 부화업체의 상황으로 보아 생산이 과잉되다 보니 가격 덤핑을 하게 되는데 원래 가격에서 50원 정도의 덤핑은 예상로 일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덤핑으로도 팔리지 않으면 48시간내에 소모되어야 하는 생물이라는 취약점 때문에 고속도로상에 버리거나 양계장에다 가져다 놓고 나중 출하할 때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줄잡아 추정하면 금년 병아리 생산량 50% 이상이 외상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는데 생산이 과잉되다보면 우리 부화업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불신폭조가 생기게 되어 한 부화장이 망하거나 사고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이 전혀 없는 산업이 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중경:**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독식풍조 이것이야 말로 많은 부조리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구조 자체가 바로 되어 있고 일자체에 성실하면 모두가 공존할 수

있고 잘 살수 있습니다.

**신정일:** 네,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기운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자연 추세에만 맡기지 말고 좀더 앞으로 당길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양계 협회에서 담당해야 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가 훨씬 강화되어야 겠지요.

**유종래:** 협회가 힘이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협회는 원래 한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자는 생산자 단체이니 만큼 모든 분들이 협회에 참여하여 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계속 논의되는 사료외상 문제는 곧 사라질거라고 보입니다.

**사회:** 양축가 입장에서 사료, 약품업계에 바라는 바도 많을 것인데 이에 관해 얘기를 잠시 나누어 볼까요

**박준영:**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축산진흥기금의 혜택이 양축가보다도 사료공장 측에 더욱 유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자기 자본으로 양계장을 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을 볼 때 아이로니하게도 우리나라 양계장들은 모두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오히려 정보가 빠른 행정당국에서 하필 이렇게 어려울 때 사료가격의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여 이를 사료업자들이 이용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료공장들이 경영압박을 당하게 되면 외상을 수거하기 시작할텐데 결국 양축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지요.

**김중경:** 사료가격 인상시에 사료 공장들이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남들의 눈치만 보면서 인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육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준영:** 백신가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년경만 해도 180원 하던 ND 백신이 지금 1500원으로 올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계란값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양축가들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회:** 이제 좌담회의 본론은 대충 끝난것 같습니다. 그외 이번 기회에 더 말씀 하실것이 있으십니까?

**박준영:** 네, 요즈음 저희 부화업자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양계업계의 가장 큰 난제인 생산 조절에 관해 수차 논의 했습니다.

우선 흐르는 물의 윗부분부터 막아, 보자는 뜻에서 우리 부화인 스스로가 병아리의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가지고 있는 종계를 사실 그대로 등록하고 초생추의 출하보고를 성실히 하자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공존공생한다는 원칙에서 이내 적 협조하겠다는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니 다른 브로일러나 체란, 사료, 동물업계가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래:** 종전에 박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부화업자들이 생산조절을 하기 위해 굳은 결의를 내세웠는데 물론 부화인 자신들도 이 결의를 실행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만 양축가들도 이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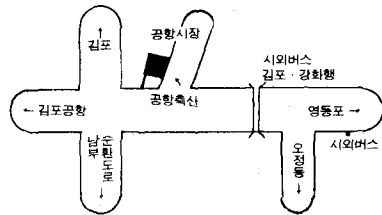
부화업자가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병아리 가격을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덤핑을 하고자 할 때도 사육자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세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업계가 정화운동에 활발하게 호응하고 있는 시점에 모든 양계관련 업계가 다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양계 풍토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사회:**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공항축산약품상사

### \* 축산관계서비스 일체 \*

- 출하알선 · 도서구비
- 각종 질병 세미나  
(영사기구비, 유명강사 초빙)



효율적인 축산관리를 위하여  
성심껏 봉사하겠습니다.

수의사 : 이 경 선  
          김 호 용  
          이 종 용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21-12(공항로타리) ☎ 66-0510